

현대정유

내실있는 성장 가능성 보인 한해

김 주 영

〈현대정유 홍보팀〉

1. 시설 및 영업망의 확충

현대정유의 '96년은 재창립 3주년을 맞이한 한해였다. 재창립의 원년과 이듬해가 본격적인 성장을 위한 준비단계였다면, 3년째를 맞이한 '96년은 내실있는 성장의 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현대정유의 '96년 한해는 의미있는 결실을 거둔 한해였다.

연초 '96년도 회사경영의 목표를 「20만 배럴 증설의 성공적인 완공과 이를 통한 독자경영 기반의 구축」이라고 정한 현대정유는 이의 달성을 위해 매진해 왔다.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96년도의 경영목표에 비추어 현대정유의 경영성적을 자평(自評)해 본다면

비교적 알찬 한해를 보냈다고 자부할 수 있다.

우선, 회사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며 '96년도의 가장 큰 사업성과라 할 수 있는 대산공장 20만 배럴 증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공했다는 것이 가장 의미있는 일이다. 재창립 3년만에 회사의 규모를 키우는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완수했다는 것은 앞으로 현대정유 발전의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

대산공장 20만 배럴 증설사업의 완공으로 현대정유는 기존 일산 11만 배럴에서 31만 배럴로 생산규모가 세배 증가하게 되었고, 국내 석유생산의 15%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지난 93년 8월 증설허가를 취득하고 96년 2월 상압 정제시설의 시험 가동에 들어가 5월 준공될 때까지, 단

기간내에 우수한 설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철저한 공정관리와 우수한 산업설비의 도입으로 투자비를 대폭 절감하면서도 해외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 당초 예정기간보다 약 5개월 앞당겨 완공하였고, 국내 최초로 병렬식 예열방식을 도입해 열효율 측면에서 에너지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신기술을 채택했다는 것이 특기할만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도 적극 부응하기 위해 황함량을 0.05%까지 탈황시켜 초저유황 연료유를 생산할 수 있는 등·경유 탈황시설을 도입·건설했다.

지난 5월 28일 대산공장 20만 배럴 증설 준공식에는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리에 치뤄졌는데, 특히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을 비롯한 정세영 명예회장, 정몽구 그룹 회장등 그룹 회장이 모두 참석해 현대정유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현대정유는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석유화학의 기초원료인 파라자일렌과 벤젠을 연산 40만톤 규모로 생산해낼 수 있는 BTX 공장의 건설에도 착공했다. 오는 '97년을 완공목표로 건설중인 BTX 공장은 석유산업의 수직계열화를 지향하는 현대정유의 궁극적인 목표에 한걸음 다가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생산시설의 증설 뿐 아니라, 물류부문에서도 제품의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적인 저유소망의 건설을 추진중이다. 강원도 옥계와 인천을 비롯해 군산과 울산, 목포등 모두 다섯곳에 대규모 저유소를 건설하고 있는데, 올해 옥계와 인천, 군산저유

**우선, 회사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며
'96년도의 가장 큰 사업
성과라 할 수 있는
대산공장 20만 배럴 증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공했다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재창립
3년만에 회사의 규모를
키우는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완수했다는
것은 앞으로 현대정유
발전의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

소가 완공되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나머지 울산과 목포저유소의 건설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어 이들 저유소가 모두 완공되면 그동안의 물류체계의 어려움도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정유는 '96년도의 매출 목표액을 '95년도 대비 약 50% 증가한 1조 8천억원으로 정하고, 전임직원들이 이의 달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현대정유의 상반기 영업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약 76% 늘어난 1조 6천6백억원,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229% 증가한 620억원, 세전이익도 25억원을 기록해 상반기 경영실적이 재창립 3년만에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상반기 매출액이 이미 1조원을 넘어서 '96년도의 연간 매출목표액은 무난히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바야흐로 흑자경영의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현대정유가 재창립 3년만에 흑자경영으로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은 鄭夢憲 사장을 비롯한 전임직원들이 「現代」 그룹 특유의 불굴의 의지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한데 뭉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정유는 올 한해동안 해외시장의 개척에도 주력해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에 대한 제품 수출을 더욱 늘려가게 되었다. 대산공장의 20만 배럴 증설이 완공됨 따라 생산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수입에만 의존해 왔던 기존의 몇몇 제품도 전량 자체생산할 수 있게 되어 해외시장의 개척에 더욱 주력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일본,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에 본격적인 제품 수출을 시작하게 되었고, 특히 일본의 경우 정유사가 아

닌 실수요자에게 제품을 수출하기는 정유5사중 현대정유가 처음이었다. 현대정유는 앞으로 이러한 추세를 지속시켜 해외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에서도 3년 전 4백 35개에 불과했던 주유소수가 1천개를 넘어 3년동안 1백 퍼센트 이상의 성장율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현대정유는 내수시장의 확고한 기반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의 개척에 전력을 다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 고객 제일주의

이처럼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현대정유는 차별화된 고객서비스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난 해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는 「드림콘서트」는 청소년을 위한 대규모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면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콘서트 문화를 심어주고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즐길 수 있는 장(場)을 열어주는 취지 아래, 미래의 잠재고객인 청소년들에게 오일뱅크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심어 주고자 하는 목적이다. 6월 18일 잠실 올림픽 메인스타디움에서 열린 '96 드림콘서트」는 국내의 내노라 하는 정상급 가수들이 총출연하고 5만여명의 관객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뤄졌다.

이외에도 하기휴가철을 맞아 동해안에서 개최한 「오일뱅크 해변영화제」와 고객들에게 색다른 문화체험을 제공한 「오일뱅크 오토영화제」, 「오일뱅크」라는 자동차 경주팀의 창단·운영으로 국내 모터스포츠계의 저변을

**현대정유는 지금까지
이루어온 것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나 이루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96년 한해의 알찬 결실을
토대로 앞으로 더욱
내실있는 성장을
거듭해 나갈 것이다.**

확대하는등 현대정유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고객서비스를 개발·실시해가고 있다. 특히, 「오일뱅크 오토영화제」는 가족끼리 즐길만한 문화행사가 부족했던 고객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기도 했다.

또, 현대정유는 자동차 경주팀에 이어 '97년에는 아이스하키팀의 창단도 준비중에 있는데, 사내공모를 통해 팀의 명칭을 「OILBANKERS」로 정하고 감독과 선수단을 선정하고 있다. 내년중으로 창단식을 가지고 국내 경기에 출전할 계획인 현대정유 아이스하키팀은 국가대표 선수와 대학팀 출신의 선수들을

주전으로 선발해 국내 아이스하키팀의 발전과 더불어 회사의 이미지 홍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현대정유는 앞으로 아이스하키팀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전용 링크장을 건설하고 연 2회씩 해외 현지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LITTLE OILBANKERS」팀으로 운용해 어린 꿈나무들의 양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위와 같이 간략하나마 현대정유의 '96년 한해를 돌아보았다. 회사의 재창립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사업들이 올 한해동안 하나씩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알찬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대정유는 지금까지 이루어온 것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나 이루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96년 한해의 알찬 결실을 토대로 앞으로 더욱 내실있는 성장을 거듭해 나갈 것이다. ♣